

방사선 이용한 '사이버나이프' 치료 안전성, 정확성 확인

-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간 시술환자 1000명 돌파

원자력의학원은 6월 27일, 사이버나이프 국내 최초 도입 후 1000번째 환자를 진료하고 지난 3년간 진행된 1000건의 치료 사례를 발표했다. 환자의 연령은 5~88세 사이로 신경계 종양 치료가 406건, 체부 종양 치료가 594건을 기록했다. 사이버나이프는 내과적 문제로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폐암을 비롯하여 췌장암, 대장암에서 간이나 폐로 전이된 암, 자궁경부암에서 대동맥으로 전이된 암 등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대장암에서 폐나 간으로 암이 전이된 경우 일반적으로는 수술을 하게 되지만, 대동맥 주위 임파절이나 골반내 임파절에 암이 옮겨간 경우에는 수술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항암제 치료에 의존한다. 원자력의학원은 이러한 환자들 중 항암제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환자 및 마취 불가 등의 이유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시행, 폐로 전이된 환자 70%와 임파절 전이 환자 71%에서 암 종양이 완전 제거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크기가 약 2.5cm 이하인 경우에는 90%이상에서 종양의 완전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술이 불가능한 조기 폐암 환자의 경우 5명 중 4명(80%)에게 있어 치료부위의 종양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치료 후 1년간 추적관찰을 통하여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환자 중 대동맥 림프절 전이가 나타난 환자 16명 중 15명(94%)의 치료부위 종양이 완전 제거 됐다. 이는 일

반방사선치료가 약 30%의 완전 제거율을 보이는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며, 치료 후 단 한 명의 환자도 심각한 합병증을 보이지 않아 사이버나이프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호흡 등으로 인한 움직임이 적은 부위, 크기가 작은 종양에 큰 효과를 보였다. 수술이 가능한 초기 암의 경우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환자가 내과적인 질환으로 인해 마취 등 수술을 견뎌내기 힘든 경우 훌륭한 대안으로 기대되며, 또한 양성 및 악성 뇌종양과 기능성 뇌 병변, 뇌혈관 기형 등에도 훌륭한 치료 성적을 보였고, 뇌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사이버나이프는 정교한 임상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치료경험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치료를 받기위해 내한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편 원자력의학원 사이버나이프센터는 지난 3월 미국, 유럽에 이어 4번째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외국 사용자의 임상 교육을 시행하는 국제교육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사이버나이프

지난해 한국 기술수출 73.5% 증가

지난해 한국의 기술무역 규모는 55억6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고, 기술수출은 14억1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3.5%의 증가율을, 기술도입은 41억4800만 달러로 28.1%의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기술무역수지의 적자액은 27억3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늘었으나, 기술무역 수지비(기술 수출액/기술 도입액) 지수는 기술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의 0.25에서 0.34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전년대비 기술수출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화학(407.1%), 정보통신(175.8%)분야이며, 기술도입이 크게 증가한 분야는 서비스(91.0%), 정보통신(76.5%)분야로 나타났다. 산업별 기술무역 수지비를 보면 화학산업이 0.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정보통신 0.56, 전기전자 0.41로서, 이들 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수지비가 모두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류별 특징을 살펴보면 IT 기술분야의 경우 전년에 비해 기술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생명과학분야는 전년에 수출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2004년에는 1억46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고, 보건의료분야도 221.9%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기술도입은 에너지자원(251.2%), 환경(141.7%), 우주항공 천문해양(180.7%) 분야 등의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기술수출액이 전년대비 94.5% 증가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전년대비 18.5% 감소하여 대기업의 기술수출 비중(89.6%)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수출입에서 적자를 기록한 국가로는 미국(21억 9500만 달러로 전체의 80.4% 차지)과 일본(4억1100만 달러, 15.1%)순이었으며,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는 중국(3억5500만 달러)과 인도네시아(6400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 SnT Net에 모여라!”

SnT Net(Science & Technology Network / www.sntnet.or.kr)은 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 과학기술인들과 ‘쌍방향 정책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2005년 1월 구축된 웹사이트다.

‘쌍방향 정책대화’는 SnT Net의 참여광장(사이버공청회, 포럼, Poll) 코너를 통해 진행되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목표로 한다. SnT Net에서는 <05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사이버공청회(6/28~7/7)와 과학기술인의 처우 등 이공계 분야의 현주소를 얘기해보자는 포럼도 진행한 바 있다.

과학기술인 또는 과학기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SnT Net의 ‘참여광장’ 코너를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기타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포럼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사이트는 회원가입 시 ‘과학기술분야별 전문/관심 항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SnT Net 회원 누구나 분야별 ‘오토그룹(커뮤니티)’에 자동 소속된다.

한국, 기술경쟁력 세계 2위

- 2005년도 IMD 세계경쟁력 평가 분석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 5월 12일 국가경쟁력 평가의 국가별 주요 평가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최근 「IMD 세계경쟁력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을 발간하여 60개 평가대상 국가와 지역의 국가경쟁력 314개 평

최초 우주발사체용 추적소 건설

- 지난달 15일 제주서 기공식, 330억원 투입 2006년 완공 예정



제주추적소 조감도-왼쪽부터 제1 원격자료수신동, 제2 추적레이다동, 전력공급동.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채연석)은 전남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우주발사체의 비행을 감시할 제주추적소의 건설 기공식을 지난 7월 15일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하천리 추적소 건설부지에서 거행했다. 3만 5000평 부지에 3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완공할 제주추적소는 추적레이다 1개동을 비롯하여 제1, 2 원격자료 수신장비동, 전력공급동 등 총 4개동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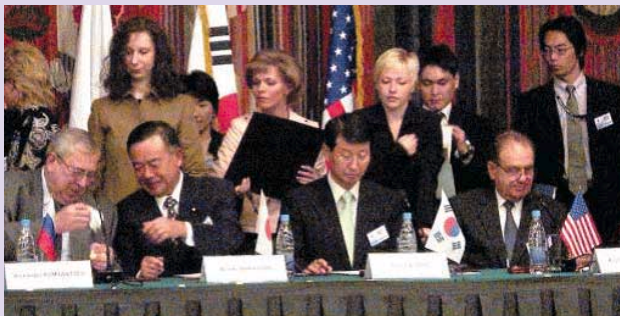
제주추적소는 고흥 우주센터에서 발사하는 모든 우주발사체를 추적하여 각종 비행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발사체로부터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고흥우주센터의 통제센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발사체의 비행궤적은 물론, 탑재위성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가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9위, 과학경쟁력은 15위, 기술경쟁력은 2위로 작년에 비해 모두 크게 상승하였는데, 특히 IMD가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해 설정한 4대 분야 중에서 ‘발전인프라’ 순위가 23위를 기록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림 1 참조).

또한 ‘발전인프라’를 구성하는 5개 부문 중에서도 과학인프라(15위)와 기술인프라(2위)가 경쟁력을 선도하고 있어, 과학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부지 프랑스로 결정



6월 2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ITER장관급 회의 모습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는 프랑스 카다라쉬에 건설 한다”

ITER 참여 6개국(한국, 러시아, 미국, EU, 일본, 중국)은 지난 6월 2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에서 이같이 최종 결정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동안 ITER 건설부지는 일본(로카쇼무라)과 EU(카다라쉬)가 유치신청을 하여 지난 2003년 12월 장관급회의에서 부지를 결정코자 하였으나 한국과 미국은 로카쇼무라를, 중국과 러시아는 카다라쉬를 지지함으로써 부지결정이 지연되어 왔다. 그동안 일본과 EU는 ‘유치국과 비유치국간 역할분담 방안’에 대해 협상하여 지난 5월 5일 합의하고 일본이 부지를 양보하기로 정치적 결정을 함으로써 이번 6개국 장관급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 ITER 참여 6개국은 최종부지 결정을 함으로써 본격적인 건설착수를 위해 ITER 공동이행협정(JIA) 체결 및 ITER 국제기구 설립 등 남은 현안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한 단

계별 실무협상을 개최하여 연내에 공동이행협정에 가서명을 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을 할 계획이다.

ITER 프로젝트는 태양에너지의 발생원리와 같은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대형 핵융합실험로 건설을 목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6개 참여국(한국, 러시아, 미국, EU, 일본,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ITER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EU,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약 15억불을 투자하여 공학적 설계(EDA)를 완료하였으며, 이제 본격적인 장치 건설을 위해 ITER 6개국이 구성되었다.

ITER 건설비는 약 50억불이 소요되며, 유치국인 EU가 50%, 나머지 5개국은 각 10%씩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빈국으로서 미래의 무한 청정에너지인 핵융합발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03년 6월부터 ITER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이는 국가 핵융합연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추진되어 온 KSTAR 장치 건설경험을 통한 기술력과 우수한 핵융합 연구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우리 나라는 ITER 참여를 통해 미·EU·일·러시아가 그간 축적해온 공학적 설계 기술의 이전은 물론 ITER 주요장치를 제작·납품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이전 및 관련 산업의 첨단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2035년경 핵융합 발전이 실용화될 경우 핵융합 발전의 원천기술 보유국 위치 확보는 물론 핵융합발전소 건설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술경쟁력이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를 올리는데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그림 2 참조).

◆ 과학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은 2002년 12위로 평가된 이후 2년 연속 하락하였으나 올해 15위로 평가되어 다시 상승세로 반전했다. 22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하였고, 5개는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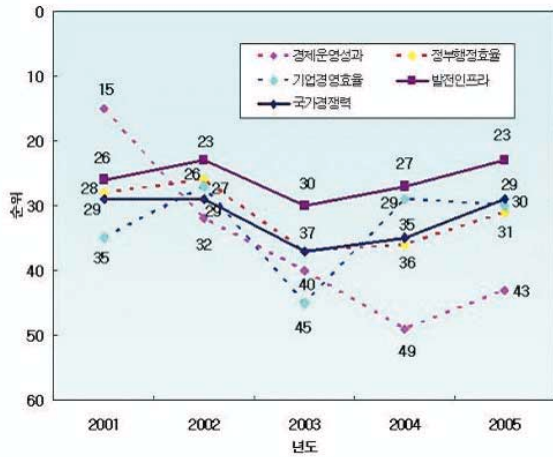
정량지표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설문지표의 순위는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하여 과학경쟁력의 순위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기록해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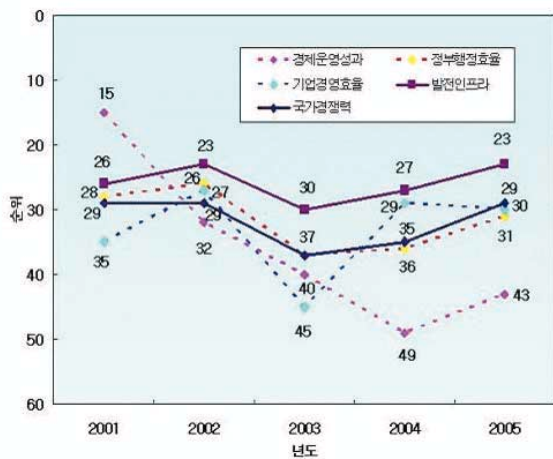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국가경쟁력	29	29	37	35	29 (▲6)
1. 경제운영성과	15	32	40	49	43 (▲6)
2. 정부행정효율	28	26	37	36	31 (▲5)
3. 기업경영효율	35	27	45	29	30 (▽1)
4. 발전인프라	26	23	30	27	23 (▲4)
과학경쟁력	14	12	16	19	15 (▲4)
기술경쟁력	21	17	27	8	2 (▲6)

※ 괄호안은 전년대비 순위변화(상승 ▲, 하락 ▼)

[표 1] IMD 국가경쟁력 변화추이(2001~2005)



[그림 1] 우리나라의 4대 분야별 경쟁력 변화추이(2001~2005)



[그림 2] 과학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추이(2001~2005)

‘과학교육의 적절성’은 36위에서 22위로, ‘청소년의 과학기술 관심도’는 49위에서 21위로, ‘법적환경의 과학연구 지원정도’는 38위에서 25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다만 ‘기초연구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14위에서 31위로 떨어져 유일하게 하락했는데, 이는 설문조사 대상인 기업인들의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기술경쟁력 평가결과

기술경쟁력은 2002년 17위에서 2003년 27위로 급격한 하락 이후 2004년 대폭 상승한 8위에 이어, 올해에도 6단계 상승한

2위를 기록하였다. 기술경쟁력 20개 평가지표 중 12개가 상승하였고, 순위가 하락한 지표는 3개에 불과했다.

정량지표의 경우는 지난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 가입자수’가 올해도 1위를 유지하였고, 올해 신설된 ‘광대역 통신요금’의 경우에도 2위를 기록하였으며, ‘GDP대비 통신분야 투자규모’의 순위가 전년대비 19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하는 등 IT 분야의 강국임을 입증하였고, 설문지표는 올해 신설된 1개(‘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를 제외한 모든 설문지표의 순위가 7~25단계씩 대폭 상승한 것이 기술경쟁력을 세계 2위로 끌어 올린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30위 이하의 낮은 순위를 보이던 ‘정보통신기술자의 충분성’이 30위에서 8위로, ‘기업간 기술협력정도’가 38위에서 19위로,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가 38위에서 20위로,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이 36위에서 18위로, ‘사이버보안이 기업에서 적절히 다루어지는 정도’가 44위에서 19위로 대폭 상승했다.

신설된 설문지표인 ‘기업규제의 기업발전 지원정도’의 평가 결과가 30위로 저평가된 것은, 설문대상 기업인들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부과되는 기술규제를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0년까지 물 위로 나는 100톤급 위그선 상용화 - 과학기술장관회의서 ... 남극대륙기지도 2011년까지 건설



한국해양연구원이 벤처기업과 공동 개발한 4인승급 위그선 시제품

정부가 대형 위그선(물 위를 나는 배)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2010년까지 상용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본격적인 극지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1년까지 남극대륙기지도 건설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계획'과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실용화에 나선 위그선은 날개가 수면에 가까워지면 양력이 크게 증가한다는 표면효과 원리를 이용해 물 위 5m 정도에 떠서 날으는 선박으로 수송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그선은 기존 선박으로는 불가능한 시속 200km 이상까지 운항할 수 있으며 연료비 측면에서도 기존 항공기의 절반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또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락한 항해를 할 수 있으며 항공기보다 고도가 낮아서 비상시 여객 안전 확보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그선 개발기술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가 10여년에 걸쳐 종래의 단점을 혁신적으로 보완해 자체 개발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 싱가포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핵심기술을 보유한 상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위그선 실용화를 위해 모두 1700억원(국고 50%, 민간 투자 50%)을 투입, 2010년까지 운항 고도 1~5m, 시속 250km에 적재량 100t급의 세계 최대 규모 위그선을 개발, 상용화하기로 했다. 대형위그선 사업은 2010년 이후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와 35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적 연구개발 실용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과 함께 오는 9월까지 사업추진단을 구성해 대형위그선 실용화 사업계획 수립과 진도 관리 및 평가, 법과 제도적 사항 지원, 국제협력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정책적 지원과 선도적 투자를 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 최대 나노축제 '나노코리아 2005', 8월 개막

우리나라 최대의 나노(Nano) 축제인 '나노코리아 2005 (www.nanokorea.or.kr)' 행사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주최로 오는 8월 24일부터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 책임을 맡은 나노코리아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이희국·임한조)는 6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계자들을 초청, 행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나노코리아 행사로 국내 나노관계자들이 하나로 결집하고 해외파트너와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 ▲연구성과 확산 및 산업화 촉진 ▲산학연 협력분야 발굴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기회 제공 ▲산업화 현주소 및 기술수요 확인 등을 피하며 국제심포지엄을 동시에 개최해 국내외 나노기술 동향 및 전략과 악과 산업화 비전 등을 제시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행사에는 ▲박홍근 하버스대 교수 ▲스위스 EPFL의 미하엘 그라첼 박사 ▲영국 Kodak(코닥)의 이안 뉴잉톤 박사 ▲임형규 삼성종합기술원장 등 세계적인 나노분야 석학들의 초청강연이 계획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국내외 업체간 나노신기술 거래가 이뤄지도록 기술거래 및 투자설명회가 열리며, NT분야 우수기업 및 연구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여야 정당내 '과학기술특별위' 출범



열린우리당의 '과기특위' 출범식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과학기술 현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과 관련해 조당적으로 특별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있어도 이처럼 특정 정당 내에 과학기술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조직되기는 한국 정당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가진 '열린우리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창선)'는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대학원생을 비롯, 연구원, 대학교수, 벤처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기술인을 포용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과학기술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론 수립 지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정부

정책 협의 ▲과학기술계와 집권여당간 쌍방향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 등을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당 정책수립 기능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인터넷을 활용해 특별위원회를 상시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도 지난달 19일 광주과학기술원 대강당에서



한나라당의 '과기특위' 출범식날 공동연구 협약체결 모습

‘과학기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 출범식을 가졌다. 한나라당 과학기술지원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광주 과기원 원과 대구경북 과기원, 양 지역 과학계의 공동연구 협약식을 성사시켜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과학기술분

야에서 양 지역의 대표적인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협력기로 한 첫 사례여서 영·호남간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과기특위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쌍방향 과학기술 지원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5.25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식 발표한 ‘H₂O 프로젝트(세계적인 과학자 양성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H₂O 스타트’ 운동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특별위원회의 창을 만들어 유비쿼터스 체제로 상시운영하게 된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프로젝트 2023’을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과학기술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2023’은 2004년 현재 세계 19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의 과학경쟁력을 매년마다 1계단씩 높여 19년 후인 2023년에 한국을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목표와 의지를 담은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2023’의 실천전략에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과학교육제도 개선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계기마련 ▲과학기술인 현장방문투어 ▲과학기술투자재원확충 ▲전국민적 과학기술문화 확산운동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다.

모든 국가연구과제에 고유번호 부여한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정보의 공동 활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과학기술관련 정보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하기로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7월 19일 가졌다.

이 표준화사업은 지난 해 7월에 확정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가 과학기술정보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의 표준화가 최우선적인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정보의 생산·관리·유통과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도출하게 되며, 전 부처의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유일한 표준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식별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과학과 국회의 만남’ - 과학기술정책자문단 출범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정책자문단 모임인 ‘과학과 국회의 만남’이 6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상호간 이해증진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과학과 국회의 만남’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미래전략특별위원회 등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28명의 국회의원과 각 분야에 걸쳐 현직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145명의 전문 과학기술인들로 구성된 28개 과학기술 정책자문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간사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각각의 정책자문단은 국회의원 1명에 과학기술인 5인 내외로 구성돼 있는데 국회의원은 과학기술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소, 산업현장, 각급 학교 등 연구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부적인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과학기술인이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과 주요 과학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국회 과학기술의 날 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㉔

정리_ 미디어팀